

신앙과 고독과의 갈등

모리타 스스무(森田進)*

한국의 근대시와 현대시의 분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다. 다만, 이 분기점의 하나로, 일제 강점 말기의 별 운동주의 시의 기교와 발상의 세계로 보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션스쿨인 숭실대학교 출신으로 동시대의 시인들로는, 김현승(1913-1975), 윤동주(1917-1945) 문익환(1918-1994)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매우 퓨리턴적인 기독교신자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지금, 거론하는 김현승 시인은 숭실 졸업생이면서 숭실 교단에 섰던 교사이며, 숭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시인이다. 또한 김현승의 아버지인 김창국(광주 출신)은 숭실 졸업자이며, 그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평생을 목사로 산 인물이다.

목사의 아들로써 자란 김현승의 생애는 당연히 강하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배반도 비판도 강하며, 그의 시에 복잡한 그늘을 드리우는 요인이 되었다.

김현승은 1932년,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재학 중, 교지에 투고한 시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1934,3,25)이 『동아일보』의 문화란에 실리게 되어 시단에 등장했다. 졸업 후 유년기를 지낸 고향의 광주로 가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37년까지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시단』에, 「황혼」, 「너와 나」 「밤 마음」 등의 20편을 발표했다. 일제식민지 시대 말기의 38년경부터 해방까지는 시작(詩作)을 중단하고 침묵했지만, 해방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주로 정지용이 문화부장이었던 『경향신문』의 문화면이 무대였다. 1951년 조

* 일본 惠泉女學園大學 教授

선대학교 문리과 교수, 1955년 한국문학가협회중앙위원, 전라남도 제1회 문화상, 1957년 한국문학가협회상임위원, 1958년, 한국시인협회 제1회 수상을 거쳐, 1960년 숭실대학교 교수, 1965년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위원장. 1970년-1973년, 한국문인협회부위원장, 1971년 기독교문화협회위원장, 크리스천문학협회회장, 1972년, 숭실대학교 문리대학 학장, 그 외, 연세대, 전북대 대학원등의 감사, 『현대문학』지의 추천위원이기 했다. 1973년 서울시 문화상예술부문 수상. 1951년 광주에서 월간 『신문학』을 창간하여 향토문학에 공헌했다.

업적으로는 시집 『김현승시초』(1957년, 사상사), 『옹호자의 노래』(1963년, 선명문화사), 『견고한 고독』(1970년, 성문사), 『김현승전집』(1974년, 관동출판사) 『마지막마지막에서』(1975년, 창작과 비평사) 『한국현대시해설』(1972년, 관동출판사)이 있다.

김현승의 시 세계는 1930년대에는 민족적인 낭만과 감상을 노래했고, 자연미에 기지, 풍자, 해학을 가미한 모더니즘의 경향을 보인 적도 있었다. 즉 자연미를 소재로 해서 거기에 기지와 해학을 더하여,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1960년대 초기까지는 외면적인 자연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로 관심을 돌리면서, 기독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세계를 보여 주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서거까지는 그와 같은 기독교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존재론적인 자아(고독한 자아)의 세계를 계속 추구하였다. 이 작업은 한국현대시에 형이상학적인 무게와 깊이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시인은 셀 수 없다.

김현승은 무엇보다도 ‘고독’을 응시하고 추구했던 시인인 것이다.

일본에도 고독의 문제를 추구한 작가는 많다. 하기와라 사쿠다로(萩原朔太郎)가 대표적인데,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경우는 이미지(환상성, 음악성)에 있어 뛰어나다. 하지만 김현승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숭실 출신이며 엄격한 기독교윤리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고독을 추구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형이상학적이다.

단 일본에서는 경건한 기독교시인으로서의 인상이 있어서, 곧 바로 「가을의 기도」 가장 먼저 떠오른다. 아마도 가을을 좋아한 야기 주키치

(八木重吉)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이리라.

하지만, 김현승은 어디까지나 '고독'에 집착한 형이상학적인 시인인 것이다.

우선 「자화상」을 읽어 보기로 하자.

내목이 가늘어 懷疑에 기울기 좋고,

血液은 鐵분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
뽕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팅게일……

마흔이 넘은 그보다도
뺨이 쪼들어
失戀엔 아주 失望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
信仰과 이웃들에 자못 길들기 어려운 나--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쳐 허허 웃어버리는
肥滿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내가 죽는 날
단테의 煉獄에선 어느 扉門이 열리려나?

김현승이 추출한 자화상은 〈회의, 눈물, 실망, 자못 길들기 어려운 나, 웃어버리는〉 등, 다른 사람과 공통적인 자아의 모습이지만, 상당히 내공(內攻)적이고 허무적인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것은 자아의 분석이며, 그 자아를 성립시키는 핵에 있는 것은, 실은 김현승의 고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윽고 이 극도로 독자적인 고독의 실체를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 추구해 가게 되는데, 그 눈부신 성과가 「양심의 금속성」 「눈물」 「내 마음은 나뭇가지」 「인간은 고독하다」 「견고한 고독」 「절대고독」을 낳은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시집 『견고한 고독』은 주목해야 할 시집이다. 여기서 고독을 의인화해서 작자와 대화하게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다양한 해석

을 끌어낼 수 있다. 거기에서 기성(既成)의 기독교적인 인생관에 대한 도전을 읽어낼 수도 있겠다.

또한, 이 추구가 도달하는 지점이, 시집 『절대고독』(1970)이었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체온으로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 의로이 내 가슴에 품어준다.

가장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시인이, 그 기반위에서 끊임없이 쌓아 올린 형이상시(形而上詩)는 과연 신앙시, 기독교시라 할 수 있을까. 답을 찾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이라고 하는 시구는 기독교 가치관이나 기성의 신앙과의 갈등 그 자체이다. 이 기독교시의 틀을 벗어난 기독교시의 세계를 어떻게 향수해야만 할 것인가. 아마도 그 갈등과 고뇌를 안은 채, 김현승은 떠나갔다. 그의 시의 본질의 해명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번역 : 이시준(숭실대학교 일본학과 교수)